

# 러시아 10월 혁명에서 노동자계급과 볼셰비끼와의 관계: '노동자 관리' 운동을 중심으로

이 정 희  
(영남대 교수)

## I. 머리말

주지하듯이,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기에 나타 난 도시 산업노동자들의 자주적 '노동자 관리' (рабочий контроль)<sup>1)</sup> 운동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내포한 급진적인 운동으로서 자유주의 임시정부를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sup>2)</sup> 그러나 이를 둘러싼 볼셰비끼와 노동자 계급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노동자계급은 이 운동 속에서 社會主義 구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그것이 볼셰비끼가 사용하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었는가 하는 물음은 커다란 의문에 쌓여 있다.<sup>3)</sup> 왜냐하면 볼셰비끼는 노동자계급과 연합하여 10월

---

1) 러시아 혁명기의 '노동자 관리'는 실제로 생산과 분배에 관한 자주적 '노동자 관리' 운동을 의미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급진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노동자 관리' 운동은 노동자계급이 공장 내에서의 생산경영과 분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자신들이 스스로 지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기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하였다. 좀 더 이론적으로 정의내리자면 자주적 '노동자 관리'는 생산수단과 직접 생산자가 분리되지 않으며, 생산 과정상의 결정이 직접 생산자의 참여 하에서 이루어지고 노동규율이 직접 생산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실천됨으로써, 가능한 한 최대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이고도 정의로운 생산과 경영의 방식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자주적 '노동자 관리'는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중요한 조건이나 이론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2) 유한수, 「1917년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생산관리 운동」 한국슬라브학회, 러시아, 세 질서의 모색』(열린책들, 1994).

3) T. A. Ignatenko, *Sovetskaia istoriografiia rabocheho kontroliia I natsioalizatsii*

혁명을 달성하였으나 내전 시기와 초기 사회주의국가 수립기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자계급 및 다른 사회주의적 정당과 커다란 갈등과 대립에 빠져들었고, 당은 '노동자 관리'를 폐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였으며, 내전 이후 결국 노동자들은 생산 과정에 관한 자주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가들은 '노동자 관리' 운동을 둘러싼 불세비끼와 노동자계급의 갈등 관계에 관해서 깊은 고찰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혁명 활동이 레닌의 혁명 구호, 즉 '소비에트 권력'보다 상위 개념이 되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야말로 10월 혁명의 성격에 관한 한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가진다고 본다. 왜냐하면 '노동자 관리' 운동은 1917년 2월 혁명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공장위원회(Фабзавком)<sup>4)</sup>를 중심으로 생겨났고, 여기서 부르주아에 대해 격렬한 계급적 저항을 표현하였으며, 더 나아가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려는 움직임으로서 1917년 동안 노동자들의 정치적意識에 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10월 혁명 이후 자주적 '노동자 관리'가 관료적 '노동자 행정'(рабочее управление)<sup>5)</sup>으로 변질되면서, 노동자들과 불세비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노동자 관리' 운동에서 당시 불세비끼를 비롯한 제 정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태도나 노동자들이 사용한 사회주의 구호의 의미를 찾아 내는 것은 흥미있으리라 본다.

---

*promyshlennosti v SSSR, 1917-67gg.* (Moskva, 1971), s. 202. 이하 *Sovetskaia istoriografiia*로 약함.

- 4) 공장위원회의 전신은 1905년 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공장내의 작업장 위원회였다. 처음에 작업장 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작업장 환경이나 내규 등, 비정치적이면서도 국지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17년 2월 25일 전제정 타도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저항시위가 전개되자 공장위원회 조직은 전 도시의 공장에 확산되었고 강력한 흡인력을 가지는 조직으로 변하면서 노동자들의 기초적인 활동 기구가 되었다. 그 후 이 기구는 공장 소비에트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초 조직이 되었다.
- 5) '노동자 행정'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는 1918년에 불세비끼 이론가였던 스코보르조프-스체빠노프(Skvortsov-Stepanov)가 쓴 논고, *Ot rabocheho kontroliia k rabochemu upravleniu v promyshlennosti i zemledelenii* (『생산과 분배에 관한 노동자 관리에서 노동자 행정으로』)에서 나타났다. 그는 이 저술에서 '노동자 행정'이라는 용어를 노동자들 중에서 선출된 인물이 행정기구에 참여하거나 공장경영을 전담하고 노동자들은 이 기구를 감시한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 II. '노동자 관리' 운동의 역사서술상의 문제점

지금까지 서방 역사가들이나 소련 사가들의 '노동자 관리' 운동의 연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17년 혁명 동안 '노동자 관리' 운동은 공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경영인의 수탈에 저항하려는 본능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즉흥적 운동인가 아니면 미래의 새 질서에 관해서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인 목표를 가졌던 마르크스주의적 운동인가라는 의문이다.

10월 혁명 당시에 레닌과 볼셰비끼는 자주적 '노동자 관리' 운동을 국민경제를 복구하고 부르주아적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계급투쟁적 행동이라고 설명하였으나, 10월 혁명 이후에 가서는 이 운동이 완전히 볼셰비끼의 통제를 벗어나 하층 노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점차 이 운동에 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sup>6)</sup> 예를 들면 사회주의국가 건설 이후에 뻬안크라토프바(A. Pankratova)<sup>7)</sup>, 예고로바(A. G. Egorova), 실란찌예프(N. P. Silantiev) 등 정통 소련 사가들은 사료를 편향적으로 이용하여 '노동자 관리' 운동을 볼셰비끼의 노선에 따라 지도받은 마르크스주의적인 계급투쟁 운동이라는 교과서적인 설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sup>8)</sup> 그러나 이들 역시 1918년 이후

6) V. I. Lenin, *On Workers' Control and the Nationalization of Industry* (Moskva, 1970), ss.173-4; S. A. Lozovsky, *Rabochii kontrol'* (Petrograd, 1918), ss. 32-58; I. I. Stepanov-Skvortsov, *Ot rabocheho kontroliia k rabochemu upravleniiu* (Moskva, 1918) 참조.

7) A. Pankratova, *Fabzavkomy Rossii i bor'ba za sotsialisticheskuiu fabriku* (Moskva, 1923). 이하 *Fabzavkomy*로 약함; idem, *Fabzavkomy i profsoiuzy v pervye gody revoliutsii 1917g.* (Moskva, 1927). 이하 *Fabzavkomy i profsoiuzy*로 약함. 뻬안크라토프바는 1920년대의 가장 영향력있는 역사학자로 이름 높았던 뻬트로프스끼의 수제자였다. 그녀는 볼셰비끼의 선전적인 선언문에 입각하여 기술하는 방식과는 달리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설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혁명사를 전문 역사가의 방법론에 의해 서술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녀는 이 저술에서 <세르프와 몰로토프 공장>, <뜨레고르노이 마누팩추리 공장>의 하부조직의 문서와 회의록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노련미를 보였다.

8) A. G. Egorova, *Profsoiuzy i fabzavkomy v bor'be za pobedu Oktiabria, mart-oktiabr' 1917 goda* (Moskva, 1970); N. P. Silantiev, *Rabochii kontrol': proiavlenie tvorchestva narodnykh mass v bor'be za vlast' Sovetov, 1917-20*

의 '노동자 관리' 운동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내전 동안 노동자들의 행동과 불세비끼의 방침이 종종 대립하였기 때문에 레닌이나 소련 사가들은 노동자들의 행동을 意識的인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부인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1930년대 스탈린 시대에는 전적으로 당 중심의 역사 서술만이 존재하였는데 당시 유일하게도 프레이들린(B. M. Freidlin)은 혁명 당시의 노동자들의 활동을 자주적인 것으로 강조하여 탄압을 받았다.<sup>9)</sup>

그 후 1960 년대에 나식린(V. P. Nasyrin), 고르만(A. Ya. Gorman), 드로비제프(V. Z. Drobizhev)는 노동자들의 행동이 부르주아 임시정부를 공격하려는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1917년의 실업과 물가고, 착취 및 궁핍 등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고, 따라서 기업인의 생산 사보타지에 대한 경제적 저항이 주된 동기였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그러나 혁명의 주된 수행자로서 보아 온

gg. (Moskva, 1954); P. V. Volobuev, "Leninskaja ideja rabocheho kontrolija i dvizhenie za rabochii kontrol' v marte-oktiabre 1917 g.," *Voprosy istorii KPSS* 6 (1962), ss. 39-56.

- 9) V. M. Freidlin, "Bor'ba predprinimatelei protiv rabocheho kontrolija v 1917 g.," *Bor'ba Krasnov* 6-7 (1931), ss. 21-6; *Ocherki Istorii rabocheho dvizheniia v Rossii v 1917 g.* (Moskva, 1967); "Glava iz podgotovliaemoi monografii 'rabochii kontrol'", *Istorii proletariata SSSR* 12 (1932), 16 (1933); "Dekret o rabochem kontrole," *Istoričeskii marksist* 5 (1933), ss. 84-5. 프레이들린의 글들을 분석해 보면 그는 20년대 초의 불세비끼 이론가인 스페냐노프, 밀류틴의 논문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또 그는 1917년 11월 레닌의 <노동자 관리> 포고령이 분명히 2개였음을 밝히면서 나중의 것은 공장위원회와 독자적인 결의문에 맞서기 위해 먼저 것을 수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소련 사가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였다. 프레이들린은 1918년 초의 복잡한 상황을 검토하면서 '노동자 관리'가 지역적이고도 분권적인 측면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것을 과장하는 것은 오류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그는 1918년 초에 '노동자 관리'가 계급투쟁으로서의 보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수립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당의 검열의 지시에 따라 그의 저작은 출판을 금지당하였다.
- 10) V. P. Nasyrin, "O nekotorykh voprosakh sotsialističeskogo preobrazovanija promyshlennosti v SSSR," *Voprosy istorii* 5 (1956), ss. 90-100; A. Ya. Gorman, "O sotsialističeskom preobrazovanii promyshlennosti SSSR," *Voprosy istorii* 2 (1957); V. Z. Drobizhev, "Staticheskie dannye o roli rabocheho kalssa v formirovanii organov upravleniia promyshlennosti, 1917-22 gg.," *Iz istorii rabocheho kalssa SSSR, sbornik statei* (Leningrad, 1962);

노동자계급의 의식의 후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소련 사가들을 새 모순에 빠지게 하였다. 1960~70년대에 다시 셀리츠키(V. I. Selitskii), 이트킨(M. L. Itkin), 제이플린(D. Zeitlin), 꼬발렌코(D. A. Kovalenko)는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노동자 관리'를 통해 궁핍과 착취에 저항하였으나 점차 이것을 정치적 봉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는 시각을 제시하였다.<sup>11)</sup> 이에 반해 스테파노프(Z. V. Stepanov)는 위의 해석이 모두 일면적인 것으로 비판하면서 노동자들의 의식 수준이 상황과 시기에 따라 수시로 발전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하였다.<sup>12)</sup>

한편 멘셰비끼를 위시한 非볼셰비끼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sup>13)</sup>이나 자유주의

---

"Uchastie profsoiuzov v sozdanii sovetov narodnogo khoziaistva v 1917-18gg." *Uchenie zapiski Moskovskoi vysshei zaochnoi shkoly profdvizhenia VtsSPS*, v. 2 (1960). 나식린은 기존의 공식적인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서술들이 10월 이전의 '노동자 관리'를 단지 정치적인 봉기를 위한 행동으로 단순화시켰다고 비판하였다. 더 나아가 가서 그는 볼셰비끼가 공장위원회를 지도하였다는 설명도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11) V. I. Selnitskii, "Bor'ba trudiashchikhsia za kontrol' nad raspredeleniem," *Istoriia SSSR* 3 (1967), ss. 3-16; "Nekotorye voprosy bor'by petrogradskikh rabochikh za kontrol' nad proizvodstvom v period mirnogo razvitiia revoliutsii, mart-iun' 1917 g.," *Istoriia rabocheho klassa Leningrada*, vyp.1 (1965), ss.187-210; D. A. Zeitlin, "Fabrichno-zavodskie komitety v fevrale-oktiabre 1917g.," *Voprosy istorii* 11 (1956), ss.86-97; D. A. Kovalenko, "Bor'ba fabrichno-zavodskikh komitetov Petrograda za rabochii kontrol' nad proizvodstvom, mart-oktiabr' 1917g.," *Istoricheskie zapiski*, t. 61 (1957), ss. 66-111; M. L. Itkin, "K voprosu o rabochem kontrole nad proizvodstvom i vooruzheniem proletariata nakanune Oktiabria," *Lenin i Oktiabr'skoe vooruzhennoe vostanie v Petrograde* (Moskva, 1964), ss.250-58; idem, "Nekotorye funktsii rabocheho kontroliia v period podgotovki vooruzhennogo vosstaniia, iul'-oktiabr' 1917 g.," *Rabochii klass i rabochee dvizhenie v 1917 g.* (Moskva, 1964), ss. 305-24; "Tsentry fabrichno-zavodskikh komitetov v 1917 g.," *Voprosy istorii* 2 (1974), ss. 21-35.
- 12) Z. V. Stepanov, *Rabochie Petrograda v period podgotovki i provedeniia Oktiabr'skogo vooruzhennogo vosstaniia: avgust-oktiabr' 1917 g.* (Moskva, 1965); idem, *Fabzavkomy Petrograda v 1917 godu* (Leningrad, 1975). 이하 *Fabzavkomy*로 약함; idem, "K voprosu o rabochem kontrole nad proizvodstvom i raspredeleniem," *Istoriia SSSR* 1 (1967), ss. 232-4.
- 13) S. Schwarz, *Fabrichno-zavodskie komitety i profsoiuzy v pervye gody*

계열의 서방 보수 사가들은 이 운동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성격을 부정하고, 이것을 빈곤과 전쟁으로 인하여 도탄에 빠진 노동자들과 민중이 자본가와 경영인에게 벌인 절망적인 저항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아브리치(P. Avrich), 키이프(J. H. Keep)는 1917년 당시 노동자들은 대개 농민 출신들로서 '노동자 관리'는 명백히 공동체적 자치를 회구하는 러시아의 인민반란 전통의 한 형태로 보고, 이 운동을 인민주의적이거나 급진적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운동으로 해석하였다.<sup>14)</sup> 그러나 스미스(S. Smith), 켕커(D. Koenker), 만델(D. Mandel)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도시 노동자들에게 프롤레타리아 階級意識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노동자 관리'를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목표에 의거한 계급 투쟁적인 행동으로 해석하였다.<sup>15)</sup> 이상과 같은 해석 상의 난맥을 풀기 위해서 필자는 '노동자 관리' 운동에서 意識의 존재에 관한 설명은 노동자들의 출신이나 계층 분화의 정도를 검토한 후, 당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갖고 있던 정체감과 동기나 욕구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또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였는가를 검토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본다.

두번째 커다란 쟁점은 '노동자 관리' 운동을 둘러싸고 노동자계급과 불세비끼가 맺은 상호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노동자 관리'가 노동자계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된 것인가, 아니면 불세비끼의 계획에 의존하여 진행된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소련 사가들은 불세비끼의 계획에서 벗어난 '노동자 관리'는 혁명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세비끼와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나 대립적인 국면을 체계적으로 삭제하거나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건으로만 보고 언급하기를 회피하였다.<sup>16)</sup> 다른 한편에서 멘세

---

*revoliutsii* (Stanford, 1935). 이하 *Fabrichno-zavodskie*로 약함; M. S. Bershtam, red., *Nezavisimoe rabochee dvizhenie v 1918 godu, dokumenty i materialy* (Paris, 1981); D. Dalin, *Narodnoe khoziaistvo i sotsializm, Sbornik statei* (Moskva, 1918); N. Sukhanov, *Zapiski o revoliutsii, 1921-23 gg.* (Moskva, 1922-23)

14) J. H. L. Keep, *op. cit.*; P. Avrich, ed., *Anarchists in the Russian Revolution* (Ithaca, 1973). 이하 *Anarchists*로 약함; idem, "The Bolsheviks and Workers' Control," *Slavic Review* 22: 1 (1963), pp. 47-63.

15) S. Smith, *Red Petrograd*; D. Mandel, *The Fall*; D. Koenker, *Moscow Workers* 참조.

16) A. Pankratova, *Fabzavkomy*; P. V. Volobuev, "Leninskaia ideia rabochego

비끼를 위시한 非볼셰비끼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서방 자유주의 계열의 보수사가들은 러시아 노동자들의 의식은 매우 후진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볼셰비끼의 음모와 권모술수에 의해서 선동되어 움직였고 볼셰비끼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이와 대조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혁명당 좌파와 무정부주의자들은 공장위원회가 매우 자율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특히 그 당시의 무정부주의자들에 관한 연구에 입각하여 아브리치는 공장위원회는 분권적 경향을 띠었고 볼셰비끼는 중앙집권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볼셰비끼와 노동자들의 동맹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때문에 아브리치는 3~10월 사이에 볼셰비끼가 전략상 노동자 계급과 일시적으로 제휴하였고, 10월 봉기에서 권력을 장악한 이후부터는 공장위원회에 의한 '노동자 관리'를 억압하였다고 보고 있다.<sup>19)</sup>

그러나 修正主義 사가인 스미스와 본넬(V. Bonnell)은 러시아 노동자들의 의식은 1870년대 산업화 이후 오랜 투쟁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매우 앞서 있었고, 공장위원회는 결코 분권적이거나 무정부주의적인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10월 혁명까지 볼셰비끼 사상과 '노동자 관리' 운동은 얼마든지 양립 가능했으며, 노동자와 볼셰비끼와의 관계는 매우 동등하고 상호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했다.<sup>20)</sup> 특히 스미스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노동자 관리' 운동에서 극단적인 자치권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공장위원회 대표 대다수가 소비에트 선거에서나 봉기계획에서 이들에게 다수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스미스는 '노동자 관리' 운동에 관해서 볼셰비끼와 노동자계급의 입

---

kontrolia i dvizhenie za rabochii kontrol' v marte-oktsiabre 1917 g," *Voprosy istorii* 6 (1962), ss. 39-45; N. V. Voskresenskaia, V. I. Lenin: *Organizator sotsialisticheskogo kontrolia* (Moskva, 1970) 참조.

17) D. Dalin, *Narodnoe khoziaistvo i sotsializm, za god, sbornik statei* (Moskva, 1918); N. N. Sukhanov, *The Russian Revolution*, 4 vols. ed. Carmichael (London, 1955); S. Schwarz, *Fabrichno-zavodskie* 참조.

18) Soiuz SR.-Maximalistov, *O rabochem kontrole* (Moskva, 1918); V. Voline, *Nineteen Seventeen: The Russian Revolution Betrayed* (New York, 1956) 참조.

19) P. Avrich, *Anarchists* 참조.

20) S. A. Smith, *Red Petrograd*; D. Koenker, *Moscow Workers*; V. E. Bonnell, *Roots of Rebellion: Workers' Politics and Organization in St. Petersburg and Moscow, 1900-1914* (Berkeley, 1983) 참조.

장이 대립되었다기보다는 양자가 중복되는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불세비끼가 공장위원회를 경계하고 두려워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노동자의 불세비끼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불세비끼 이외의 정당이나 정치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는가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내전기에 불세비끼가 '노동자 관리'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당의 관계에 관한 의문이다. 이 당시에 불세비끼는 자주적 '노동자 관리'를 분권적이고 뾰뚱부르주아적인 운동이라고 비난하였고 내전기의 전시 공산주의 노동정책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불세비끼의 이념에 의거한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설명하였다.<sup>21)</sup> 그러나 서방의 修正主義的 社會史家인 로젠버그(W. Rosenberg), 레윈(M. Lewin), 말레(S. Malle)는 내전기의 불세비끼의 근본적인 목표는 중앙집권적 권력통합이었고 이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회적 요소에 대한 싸움이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중의 하나가 자주적 '노동자 관리'의 폐지라는 것이다.<sup>22)</sup> 또 이 결과로 인해 불세비끼와 노동자계급이 서로 분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내전기 동안에 '노동자 관리'가 폐지되고 노동자들이 중앙집권적인 '국가 관리'에 종속되는 과정은 노동자들의 계층 구조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또 이 폐지의 과정은 노동자들의 조직에서나 노동자들의 신 정권에 대한 정체감에서 일어난 변화와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의문과 쟁점들은 엄청난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모두 답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를 위한 일차적인 단계로서 1917년 2월 혁명 이후 1918년 8월 내전이 발발할 때까지 '노동자 관리' 운동을 둘러싼 노동자 계급과 사회주의적 정당 및 불세비끼의 태도와 구상을 시기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로써 혁명에서 노동자계급의 意識과 자연발생성의 역할, 그리고 불세비끼의 理念이나 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하고, 노동자계급과

21) E. G. Gimpel'son, *Voennyi kommunizm: politika, praktika, ideologiya* (Moskva, 1973); I. A. Gladkov, V. I. Lenin: *Organizator sotsialisticheskoi ekonomiki* (Moskva, 1960).

22) W. G. Rosenberg, "Russian Labour and Bolshevik Power After October," *Slavic Review* 44: 2 (1985), pp. 213-56; S. Malle,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War Communism, 1918-21* (Cambridge, 1985); M. Dewar, *Labour Policy in the USSR, 1917-28* (London, 1956).



볼셰비끼가 맺은 관계의 근본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부분적으로 이바지하리라 본다.

### III. '二重權力' 시기의 '노동자 관리'에 대한 각 정당들의 태도

19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 사이의 기간은 '이중권력'의 시기로서 이 시기에 두마와 공장 노동자 소비에트는 서로 자신에게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경쟁을 벌였다. 2월 혁명 이후 신 헌법의 제정의 가능성이 요원한 가운데 이 시기의 최대의 정치적 쟁점은 '전쟁참여 문제'와 '경제통제권' 소재 문제였다. 자주적 '노동자 관리'이 점차 경제통제권을 요구하면서 정치이념적인 색채를 띠자 각 정당들의 '노동자 관리'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요인이 되었다.

우리는 먼저 1917년 2월 이후 '노동자 관리' 운동이 실제로 어떤 동기에서 전개되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투쟁 목표가 정해졌으며, 또 각 정당의 태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살펴 보자. 2월 혁명 직후에 노동자들 사이에는 신 정치질서에 관한 선명한 계획이나 노선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러시아 대기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이었고 경영인들은 대개가 전제정 시대의 고급장교들이거나 외국인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에 봉기 직후에 도피하거나 작업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경우 각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은 생산이 중단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고, 즉흥적으로 공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장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와 노동자 대표 2인을 임시 공동경영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생산과 경영에 관한 '노동자 관리' 운동이 발생한 최초의 동기였다.<sup>23)</sup>

23) 공장위원회가 가장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 경우는 해군부 산하의 대표적인 국영기업들과 포탄부문 공장들, 뿌쉴로프 금속공장, 네쁘스키 조선공장 및 빠뜨론의 공장이었다. 뿌쉴로프 공장은 지역 소비에트에게 과거 공장장이 노동자들을 야간 추가노동으로 혹사시켜 쓰러지게 했던 일, 추가노동을 거부하면 마음대로 해고시켰던 일, 거칠고도 잔인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해 왔던 일들의 증거를 제시하여

그렇다면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관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가? 2월 이후 ‘노동자 관리’ 운동이 확산되자 이것은 정당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온건파로 구성된 임시정부 뿐만 아니라 대다수 볼셰비끼조차도 이에 대한 이론상의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였다. 임시정부 내의 온건파들은 막연하게 공장위원회와 기업인 사이의 상호협조와 양보를 강조하면서도 ‘노동자 관리’에 관한 한 어떤 법적 규정도 내세우지 않은 채 회피하였다.<sup>24)</sup>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에 개의하지 않고 ‘노동자 관리’의 권한을 계속 확장해 나아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뿌질로프 금속공장과 이조르스끄 기계공장, 넵브스끼 조선공장 및 뽀뜨르대제 병기공장의 노동자들은 공장위원회를 통하여 생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직접적으로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노동자 관리’에 관해서 레닌이 보여준 사상적인 변화만큼 흥미있는 주제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소련 사가들은 레닌의 사상이 미리 정립되어 있는 체계에서 나온 것처럼 논의하고 있으면서 미묘한 변화나 모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sup>26)</sup> 필자는 이 문제에 관한 소련 사가들의 서술을 검토하면서 볼셰비끼가 2월 혁명 이전에는 ‘노동자 관리’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적이 없었다는 점과 이에 관한 사상을 표현해도 그것이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

공장장의 추방 결정에 대해 승인받았다. 뽀뜨르대제 제1무기 공장의 공장위원회는 과거 경영인들이 무제한 노동을 착취한 탓으로 생산성이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폭로하고 노동자 대표가 경영진과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다. 빠로호보이 공장의 경우는 새 ‘노동자 관리’ 체제 하에서 불량품이 30%에서 15%로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M. I. Mitel'man i drugie red., *Rabodhii kontrol'*, s. 55, no. 21.

24) M. Brinton, *op. cit.*, p. 3. 이 당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행동주의적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자연스럽거나 익숙한 용어는 아니었다.

25) M. Mitel'man i drugie red., *Rabochii kontrol'*, dok. nos. 8, 9, 10, 20, 21. 최초의 ‘노동자 관리’ 운동의 주된 수행자는 미숙련공들이 아니라 대기업의 금속 부문의 숙련공들이었다. V. I. Selnitskii, *Massy v bor'be za rabochii kontrol', mart-iun' 1917 g.* (Moskva, 1971), ss. 199-202, <표 2>, <표 3> 참조. 이하 *Massy v bor'be*로 약함.; G. L. Shkliarevsky, *Organized Labor*, pp. 123-64; S. Smith, *Red Petrograd*, pp. 176-89; “Materialy k istorii rabochego kontroliia nad proizvodstvom,” *Krasnyi Arkhiv* 103 (1940), s. 109.

26) P. V. Volobuev, “Leninskaia ideia rabochego kontroliia i dvizhenie za rabochii kontrol' v marte-oktiabre 1917g.,” *Voprosy istorii KPSS* 6 (1962), ss. 39-52.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7)</sup> 소련 사가들은 최초의 '노동자 관리' 운동의 태동시에 볼셰비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증거는 거의 희박하다.<sup>28)</sup> 3월 당시 공장 내에서 정당으로서 볼셰비끼의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최초로 이 운동이 전개될 당시에 레닌은 4월 7일 그의 유명한 <4월 테제>에서 이 운동을 혁명의 목표와 관련시켜 기민하게 활용하였다.

우리의 즉각적인 과제는 사회주의의 도입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과 생산물의 분배를 우선적으로 인민 소비에트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다.<sup>29)</sup>

또 레닌은 <4월 테제>에서 혁명 활동의 새 구호로서 '토지, 빵, 평화'를 내세웠는데 '노동자 관리' 운동이 점차 확산되자 그는 여기서 '빵'이란 도시 노동자계급에게 당장에 필요한 임금에 관한 결정권이나 공장경영의 감독이나 개입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조하였다. 4월 제7차 전러 볼셰비끼 대표자 회의에서 레닌은 이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표명하였다.

'노동자 관리'나 국유화는 그 자체가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경제파국에 직면한 러시아를 파멸로부터 구해 내기 위해 취할 불가피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sup>30)</sup>

이 표현에 의하면 레닌은 '노동자 관리'는 첫째, 계급투쟁을 진행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둘째, 현금의 부르주아에 의한 사적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하에서는 러시아의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막을 수 없으며, 셋째, '노동자 관리' 자체

27) V. M. Freidlin, "Bor'ba predprinimatelei protiv rabocheho kontroliia v 1917g.," *Bor'ba Krasnov* 6-7 (1931), ss. 21-6; idem, "Dekret o rabochem kontrole," *Istoriik markist* 5 (1933), ss. 80-95; T. A. Ignatsenko, *Sovetskaia istoriografiia* ss. 1-5.

28) M. Dewar, *Labor Policy in the USSR*, p. 6; I. I. Gaza, ed., *Putilovets v Trekh revoliutsiiakh: Sbornik materialov po istorii putilovetskogo zavoda* (Leningrad, 1933), ss. 309-18. 이하 *Putilovets*라 약함.

29) V. I. Lenin, *CW* 6: 32; *CW* 24: 22.

30) V. I. Lenin, *CW* 6: 62, 850-6; M. Brinton, *op. cit.*, p. 3.

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sup>31)</sup>

3~4월간에 노동자들은 대체로 자주적 '노동자 관리' 운동을 벌이면서도 직접적 경영권을 인수하기보다는 소비에트에 의한 중앙집중적 감독체제에 순응하려고 했다. 또 우리는 빠뜨론니 공장과 깐바스 공장 및 애드미랄티 도슨 공장에서 공장위원회가 경영인 선출권 문제를 자제하는 모습을 볼 때, 노동자들의 경영 개입이 매우 신중한 태도의 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32)</sup> 이와는 달리 다른 공장들, 예를 들면 이조르스키 공장에서는 종종 미숙련공들에 의한 폭력적인 행동주의가 등장하곤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노동자와 경영인 사이에 내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실패하였기 때문이었다.<sup>33)</sup> 멘세비끼를 비롯한 온건파들은 '노동자 관리'에 대단히 회의적이었으며 노동조합조차도 '노동자 관리' 운동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자 관리'에 대해서 아직은 방어적인 성격 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못하였다.<sup>34)</sup>

그렇다면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비호하는 부르주아지는 '노동자 관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사회개혁이란 아직까지도 사회주의적이거나 무정부주의적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신 헌법이 제정된 연후에나 사회개혁을 논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노동자들과 인식상의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정치의식면에서 부르주아지는 선거에서 재산자격을 두는 차등선거제와 두마에 책임지는 정부를 원하였지만 노동자들은 평등선거제와 급진적인 민주화, 그리고 민중에 책임지는 정부를 원하였다.<sup>35)</sup> 이러한 차이는 2월 혁명 직후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되지는 않았으나, 4월 이후에 전쟁문제와 토지문제 그리고 생산 관리권에 관련한 사건이 터지면서 표면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수정주의 사가인 만델(D. Mandel)에 의하면 전쟁참여를 반대하는 4월의 시위 사건은 특히 미숙련공들에게 反부르주아적 정치적 인식을 불러 일으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sup>36)</sup>

31) V. I. Lenin, *CW* 6: 85-6.

32) D. Mandel, *The Fall*, pp. 105-7.

33) D. Mandel, *The Fall*, p. 10, A. Buzinov 연설문 참조.

34) C. Sirianni, *The Soviet Experiences*, pp. 54-57.

35) D. Mandel, *The Fall*, p. 20.

36) R. J. Devlin, "Petrograd Workers and Workers' Factory Committees in 1917," Ph. D. Diss. (SUNY at Binghamton, 1976), pp. 99-104, 114; T. H. Rigby,

수정주의 사가들과는 달리 쉬끌라레프스키는 '노동자 관리' 운동이 무정부주의적 성향 탓이 아니라 권력의 불안정 탓으로 생겨났다고 강조하였다. 그 이유로써 그는 공장위원회가 무정부주의자들보다는 멘셰비끼나 볼셰비끼와 협조하기를 선호하였고 또 항상 중앙집권적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노동자 관리'가 마르크스주의적 이념이나 계급적 의식에 의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장 내에서 민주적 입헌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37)</sup>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러시아 노동자가 정치적인 기본권을 누리거나 입헌 민주주의 체제에 참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서구의 의회민주주의, 혹은 서구식의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권력의 불안정성이 노동자들의 반란의 원인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이거나 징후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5월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식량 배급량이 1일 1인당 1 파운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임금인상에 비해 물가가 더 뛰어 올랐다.<sup>38)</sup> 한편 당시 온건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은 부르주아지에 의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임시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sup>39)</sup> 그러나 온건파들의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들로부터 아무런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것은 4~5월 동안의 정치적 인식의 결과로 노동자들이 그들의 욕구와 두마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경제사정이 악화될 때마다 공장위원회나 소비에트 하부조직이 '소비에트 권력'의 구호로 쏠려가는 반면, 온건 사회주의자들이나 지식인들은 임시정부의 권력에 참여하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었다. 이런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또 다른 징후

---

*Communist Party Membership in the USSR, 1917-67* (Princeton, 1968), p. 65.  
이하 *Communist Party* 로 약함.

37) G. L. Shkliarevsky, *Organized Labour*, p. 129.

38) 정상의 상태에서는 1일 2파운드가 필요하나 4월에는 배급량이 1일 1파운드, 7월에는 1/2 파운드, 12월에는 1/8 파운드로 떨어졌다.

39) 6월 13일 뻬뜨로그라드市 노조회의에서 지도부는 경제적인 악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관리' 보다도 정부에 의한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D. Koenker, *Moscow Workers*, p. 119.

를 들면, 사회혁명당이 6월 모스크바市 두마선거에서 50% 이상을 얻었으나<sup>40)</sup> 막연히 ‘토지와 자유’라는 구호 이외에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아무런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에트 하부기구는 사회혁명당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공장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은 온건파 사회주의자나 인텔리겐치야의 치명적인 결함이었다.<sup>41)</sup>

공장위원회는 점차 경제가 악화되자 산하의 기구들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자치적 권한을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다. 전국적 통합을 위한 최초의 시도는 5월 30일~6월 5일 <제1차 페트로그라드 全市공장위원회총회>의 개최였다. 지금까지 아브리치와 키이프는 ‘노동자 관리’가 중앙집권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적 발상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해석해 왔다.<sup>42)</sup> 그러나 스미스는 5~6월의 제1차 총회의 회의록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서방사가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sup>43)</sup> 실제로 이 회의록을 깊이 검토해 보면 ‘노동자 관리’가 무정부주의적이었다는 평가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특히 페트로그라드의 공장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합리적이었다. 3월 13일과 4월 15일 그리고 5월 27일의 회의록에서 공장위원회는 전 도시의 식량 확보와 노동 기강, 공장내 치안 유지, 적위대<sup>44)</sup> 창설 그리고 계몽을 위한 문화 행사의 조직면에서 끈질긴 노력을 보이고 있다.<sup>45)</sup> 당시 회의록의 한 연설문을 보자.

동지들이여 전 러시아에 경제적인 파국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짜르정부와 자본주의적 기업들은 러시아를 전쟁으로 몰아 넣은 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만 관심을 쏟았다. 그 결과로 경제는 대위기에 빠졌다.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실업과 기아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혁명의 성공은 경제의 회생에 달려 있다. 경제의 회생은 오직 노동조직의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40) D. Koenker, *Moscow Workers*, p. 200.

41) D. Mandel, “Russian Intelligentsia and Working Class”, *Critique* 14 (1981), 67-82; D. Koenker, *Moscow Workers*, p. 220.

42) P. Avrich, *The Russian Anarchists* (Princeton, 1971), pp. 72-81. 이하 *Anarchists*로 약함.

43) S. Smith, *Red Petrograd*, pp. 83-4.

44) R. A. Wade, *Militia*, pp. 88-102

45) C. Sirianni, “Workers’ Control,” p. 35.

생산을 위한 조직상의 변화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모든 공장위원회와 노동조합, 직능대표회, 소비조합, 노동거래소 및 철도 노동자조직은 통일적인 산업관리를 위해서 전국적인 행동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sup>46)</sup>

5~6월의 뻬뜨로그라드市 공장위원회 총회는 볼셰비끼에게 전당대회 이상으로 중요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 왔다.<sup>47)</sup> 왜냐하면 이 총회에서 임시정부에 의한 '국가 관리' 방식과 자주적 '노동자 관리' 방식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어 볼셰비끼 성향의 발언이 다수표를 얻었다는 점이다.<sup>48)</sup>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5~6월의 총회에서도 볼셰비끼와 다수 노동자들과의 관계는 매우 유동적이었고, 상황이나 의제에 따라서 볼셰비끼에 대한 지지도가 심하게 변하였다. 예를 들면 '전쟁참여' 문제에 관한 한 볼셰비끼의 입장은 큰 인기를 얻었으나 농업이나 토지문제에 관해서는 사회혁명당이 여전히 큰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46) M. I. Mitel'man i drugie red., *Rabochii kontrol'*, dok., no. 86-7.

47) A. Pankratova, *Fabzavkomy*, s. 19. 이 총회에서는 수도의 367개 공장에서 총 33.7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568명의 공장위원회 대표가 파견되었다. 주된 의제는 소비에트의 권력 참여의 문제였다. 노동자들은 소비에트의 권력 참여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하였다. 그러나 온건파를 지지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이 점은 온건 사회주의자들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 N. N. Sukhanov, *Russian Revolution*, 3: 339-40; *Pravda*, 1917. 6. 20; *Izvestiia*, 1917. 6. 29; D. Mandel, *The Fall*, p. 128.

48) 이 회의석상에 '국가 관리' 案과 '노동자 관리' 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노동자 관리' 안이 336 대 85로 승리하였다. *Pervaiia rabochaia konferentsiia fabrichno - zavodskikh komitetov* (Petrograd, 1917), s. 5; S. O. Zagorsky, *State Control of Industry in Russia During the War* (New Haven, 1928), pp. 174-5. 임시정부의 연이은 실정과 공격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적대감정 그리고 경제악화 등으로 <3월 10일 뻬뜨로그라드 협약>의 효과가 약화되자 미숙련공들의 표가 좌파로 이동하였다. 비보르그, 바실레프스끼, 오스프로프 끌름나 구역에서의 소비에트선거와 세스뜨보레즈끄 무기공장, 뻬닉스 기계설비공장, 뉴 바라노프스끼 배관공장, 불간 주물공장 등의 공장위원회에서는 볼셰비끼 지지세력이 멘셰비끼 지지세력보다 우세하였다. 심지어 비교적 후진적이었던 손톤 섬유공장의 미숙련공들 사이에서도 "소비에트 권력"이 남은 유일한 방도"라는 구호가 나돌았다. D. Mandel, *The Fall*, p. 143; M. I. Mitelman i drugie red., *Istoriia Putilovskogo zavoda 1801-1917* (Moskva, 1961), s. 77; I. I. Gaza, ed., *Putilovets v trekh revoliutsiakh: Sbornik materialov po istorii putilovskogo zavoda* (Leningrad 1933), s. 236; Z. V. Stepanov, *Rabochie Petrograda* (Moskva, 1965), s. 27.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산업 부르주아지는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생산력 증대를 위한 첫번째 선결조건으로서 정부의 각종 규제의 완화와 자유 및 노동규율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러시아 자본가와 경영인 협회에서 부르주아적 경영인들이 내놓은 결의문을 들어보도록 하자.

생산성 하락의 가장 큰 위험은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열된 사회적인 투쟁과 과도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인상 보다는 물가유지와 원활한 유통과 공급이 더 중요하다. 노동의 기피나 화폐의 고갈, 임금의 극대화를 야기시키게 될 ‘노동자 관리’ 방식은 도저히 자본주의와 병존할 수 없다. 사회주의의 힘은 자본가 계층 힘의 토대 위에서 생겨 나는 것이며 또 사회주의 실현은 분배를 조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증대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생산력의 강화는 오직 자본주의적 경영의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sup>49)</sup>

이처럼 자본가와 경영인들은 사적 재산으로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재산성과 수익성을 위해 투쟁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보호관세와 외자 허용, 기업 규제의 완화 및 노동력의 동원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영인들은 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노사 공동경영제란 도저히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직장의 폐쇄나, 사보타지 또는 자본의 도피를 시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경영인 협회에서는 ‘노동자 관리’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강경하게 거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각 개별 공장의 노동자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자들은 오직 각 지역별 노동조합과 일치하는 요구사항만 말해야 한다.<sup>50)</sup>

자주적 ‘노동자 관리’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는 공장위원회의 결의와 크게 달랐다. 노조는 공장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하면서 노조가 국가

49) *Promyshlennosti i trgovlia* 8-9 (1917), s. 192; L. E. Shepelev, “Ekonomicheskaja programma krupnoi promyshlennoi burzhazii v 1917 g.” O. N. Znamenskii, red., *Rabochii klass Rossii, ego soiuzniki i politicheskie protivniki v 1917 g.*: *Sbornik nauchnykh trudov* (Leningrad, 1989), ss. 311-19.

50) M. I. Mitel'man i drugie red., *Rabochii kontrol', dok.*, no. 68,



행정기구의 기능은 말할 수 없다고 결의하였다.<sup>51)</sup> 이처럼 1917년 동안 노동조합과 공장위원회가 서로 경쟁하고 노동조합이 공장위원회를 설득시키지 못한 현상은 러시아 혁명에서 자유주의가 결코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하는 증거가 되었다.<sup>52)</sup> 노동조합과 공장위원회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셰비키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볼셰비키는 '노동자 관리'가 노동조합의 중앙집행부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동조합에게는 공장위원회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또 공장위원회에게는 공장위원회의 통합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sup>53)</sup>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동안 임시정부 측에서는 멘셰비키 출신의 노동부장관인 스킴벨레프가 <공문 421호>에서 공장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비난하고 있었다. 멘셰비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중권력 체제를 더욱 불신하게 되었다.<sup>54)</sup> 노동자들의 공개적 연설문 속에서 점차 민주주의나 입헌적 체제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 대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노동자 국가'라는 말이 새로운 용어로 등장하였고, '소비에트 권력'이 단지 사회주의 정당을 통한 압력이나 파업, 시위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발언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sup>55)</sup>

한편 무정부주의자들과 생디칼리스트들은 계속해서 공장위원회의 자치권함과 '노동자 관리'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56)</sup> 노동자들은 '노동자 관리' 중에서 과격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고용과 해고의 권리를 요구하였다.<sup>57)</sup> 8월 12~14일의 대표회의에서 '노동자 관리'에 대한 노동자들과 레닌의 입장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났다. 레닌은 완전한 자율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당황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는 매우

51) D. Mandel, *The Fall*, p. 156.

52) *Tret'ia userossiiskaia konferentsiia*: M. Brinton, *Workers' Control*, pp. 5-6에서 재인용.

53) M. Brinton, *Workers' Control*, p. 6.

54) *Novyi put'* 1-2 (1917).

55) W. Rosenberg, "공식적 저항의 한계", 이인호, 『혁명사론』, p. 347.

56) *Golos Truda* 1 (1917. 8. 11), "Deklaratsiia Petrogradskogo Soiuza Anarko-Sindikalistskoi Propagandy"; P. Avrich, ed., *The Anarchists*, pp. 68-70.

57) M. I. Mitel'mam i drugie red., *Rabochii kontrol', dok.*, nos. 116, 132. 133.

조심스럽게 ‘노동자 관리’를 소비에트의 권한 하에 두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록 소비에트 상층부가 다수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신임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소비에트 권력’의 구호의 마력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sup>58)</sup>

그러나 8월 12~14일의 페트로그라드市 공장위원회 대표회의에서 노동자들은 이제는 부르주아지나 지식인들에게 경제를 더 이상 맡길 수 없으며 자립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나타났다.<sup>59)</sup> 자립을 역설하는 소이킨의 공장의 인쇄공인 제르비셰프(Derbishev)의 발언을 들어 보자.

노동자들은 언제나 소외를 당해 왔다. 그러나 혁명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선봉대이다. 우리는 타계급을 지도해야 하며, 또 모든 것은 우리 노동자들 손에 달려 있다. 다가오는 배고픔에 대비하여 우리는 대중적 행동을 일으켜서 슬라브인들의 게으른 본성을 타파하고 노동자계급을 사회주의로 인도할 길을 헤쳐 나가야 한다.<sup>60)</sup>

9월에 들어서서 자유주의 온건파와 완전히 결별할 것을 결심한 공장위원회 지도부는 마침내 10월 17~22일에 역사적인 제1차 전러 공장위원회 총회를 소집하였다. 이 총회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권력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었다. 멘셰비키 국제파에 속한 밀류틴(Miliutin)과 라린(Larin)은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볼셰비키의 무장 봉기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노동자 관리’에 관한 한, 이들은 ‘노동자국가 관리’(рабоч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нтроль, Workers' State Control) 사상을 변호하였다.<sup>61)</sup> 밀류틴에 의하면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주도적 관리권을 가지며, 국가는 전국적 조직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에 밀류틴의 주장은 결코 산업의 중앙집권적 관리나 볼셰비키의 독재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특히 라린은 제헌의회를 통하여 ‘노동자 관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피력하였다. 그러나 멘셰비키 국제파보

58) F. I. Kaplan, *Bolshevik Ideology and the Ethics of Soviet Labor, 1917-20: The Formative Years* (New York, 1968), p. 88. 이하 *Bolshevik Ideology* 로 약함.

59) M. Mitel'man i drugie red., *Rabochii kontrol', dok.*, nos. 103, 104, 116.

60) *Proletarii*, 1917. 8. 10; D. Mandel, "The Working Class and Intelligentsia in 1917," *Critique* 14 (1982), pp. 67-82; S. Smith, ed., *Fabzavkomy*, 1: 189.

61) S. Smith, ed., *Fabzavkomy*, 1: 217-19.

다 더욱 급진적이었던 무정부주의자들은 밀류틴의 사상에 반대하였다. 표트로브스끼(Piotrovskii), 유스찌나 주크(Iustina Zuk)를 중심으로 한 무정부주의자들은 '노동자 관리'가 노동자들에 의한 감독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전체 생산과정에 대한 참여와 통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2)</sup> 따라서 '노동자 관리' 기구는 국가경제를 위한 최고기구로서 아래서부터 위로 '생산자 연합'의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자율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부류로서는 레닌파가 있었다. 레닌파에 속하였던 스크리쁘니크(Skripnik)는 '노동자국가 관리'에서 국가가 감독과 통제 of 과정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의 성격이 '노동자계급이 주류인 국가'라는 단서가 붙는다고 부연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노동자 국가'에서 모든 국가 행정은 노동자 정당에서 지명한 인물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새로운 權力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노동자들은 새 權力과 '노동자 관리'가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았을까? 이에 대해서 아브리치는 당시 무정부주의자들이 전면적 '노동자 관리'와 민중에 의한 자치를 보장하는 정부형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지만<sup>63)</sup>, 무정부주의자들은 결코 '노동자 관리' 운동을 주도하지는 않았다.<sup>64)</sup> 그 증거로서 페트로그라드市 공장위원회 대표자 선거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받은 지지가 매우 미미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페트로그라드市 공장위원회에서 무정부주의자의 대표였던 볼린(Volin)과 볼셰비키에 합류한 밀류틴이 중앙집권적 '국가 관리'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을 때 볼셰비키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 역시 이 점을 잘 말해 준다. 물론 무정부주의자들의 급진적 사상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점차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sup>65)</sup>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방침에 관해서는 노동자들은 언제나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방법을 택하려고 했던 것이다.

62) G. L. Shkliarevsky, *Organized Labor.*, pp. 382-85.

63) G. P. Maximoff, *Syndicalists in the Russian Revolution* (New York, 1978), 36 이하 *Syndicalists*이라 약함; M. Brinton, *Workers' Control.*, p. 13.

64) Z. V. Stepanov, *Fabzavkomy Petrograda*, s. 130. 뿌질로프 공장의 대표는 부르주아 정부 하에서의 생산관리 개입의 성과는 너무나 빈약했다고 고백하였다. S. Smith, ed., *Fabzavkomy*, 1: 208; D. Mandel, *The Soviet Seizure*, p. 281.

65) D. Mandel, *The Soviet Seizure.*, p. 283.

이들의 주장을 표결에 부친 결과 라린과 밀류틴의 생각이 다수표를 얻었다. 자주적 '노동자 관리'가 무정부주의자들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정부주의자들은 공장위원회 총회에서 다수표를 얻지 못했을까? 필자가 보기에 이 점은 당시 정치 세력 사이의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 다른 사회주의 정당들과 비교해 볼 때, 무정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조직이나 세력을 확대하는 활동 자체를 매우 혐오하는 성향을 지녔고, 볼셰비키는 아직도 다른 사회주의 정당으로부터 경원시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 노동자들은 보다 더 확실성이 있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쪽으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레닌에게는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처럼 아직까지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소비에트 권력'은 볼셰비키의 구상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페트로그라드市 공장위원회 총회에서 '노동자 관리'의 원칙에 관해서 밀류틴의 案이 일단 다수를 획득하게 되자, 레닌은 이 시점에서 다른 논의는 제쳐두고 '노동자 관리'의 구호가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파괴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점을 최대로 활용하였다.<sup>66)</sup> 그는 총회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자 관리' 요구 중 몇가지 점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막연히 느끼면서도 다가 올 무장봉기의 기구로서, 또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통치기구로서 공장위원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공장위원회가 요구하는 생산과 경영에 관한 전면적 '노동자 관리'를 적극 지지하였다.<sup>67)</sup> 이리하여 과격한 '노동자 관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적인 행동과 레닌의 혁명 전략은 서로 근접하여 마침내 10월 봉기계획에서 합류하였다.<sup>68)</sup> 10월 봉기시에 공장위원회는 도로 순찰, 군사 행동, 공장의 보안조치, 식량 조달 및 수송, 탄약 및 의약품 공급, 피난처 조달, 봉기군 보호, 적위대 모집과 훈련 등 모든 면에서 볼셰비키를 도왔고 이들이 二重權力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을 수립할 길을

66) E. H. Carr, *The Bolshevik Revolution, 1917-23*, 3 vols. (New York, 1951-53), p. 2: 80; I. Deutscher, *Soviet Trade Union: Their Place in Soviet Labor Policy* (London, New York, 1950), pp. 15-16. 이하 *Soviet Trade Union*로 약함.

67) E. H. Carr, *Bolshevik Revolution*, vol. 2, p. 80; M. Brinton, *Workers' Control*, p. 14; G. P. Maximoff, *Syndicalists*, pp. 11-12; I. Deutscher, *Soviet Trade Union*, pp. 15-16.

68) A. Pankratova, *Fabzavkomy*, ss. 30-5.

열어 주었다.

#### IV. 초기 사회주의 국가 수립기의 '노동자 관리'에 관한 논쟁

10월 봉기 이후 1918년 8월 내전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기는 초기 사회주의 국가 수립기에 해당된다.<sup>69)</sup> 이 사이에 자주적 '노동자 관리' 운동은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아래로부터 기업 재산의 강제적 몰수와 국유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볼셰비끼는 개별 공장에서 '노동자 관리'가 점점 分權化 경향을 띠면서 자신의 통제를 벗어 나자 이를 매우 초조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볼셰비끼는 중앙집권적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공장위원회 조직과 자주적 '노동자 관리'를 제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무정부주의자를 비롯한 사회주의자 좌파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키면서 볼셰비끼와 노동자들의 관계는 갈등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sup>70)</sup>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자 관리'의 實像에 관한 사료는 희소한 편이다.<sup>71)</sup> 그

69) V. N. Brovkin, ed., *Dear Comrades: Menshevik Report on the Bolshevik Revolution and Civil War* (Stanford, 1991), pp. xv-xxi.

70) M. Brinton, *Workers' Control, 1917 to 1921* (London, 1970), pp. i-v.

71) C. Sirianni, *Workers' Control* (London, 1982); F. I. Kaplan, *Bolshevik Ideology* 등의 연구서는 볼셰비끼의 사회주의적인 노동의 윤리와 실제의 '노동자 관리' 사이의 모순을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M. Dewar, *Labor Policy in the USSR, 1917-28* (London, 1956); M. Gordon, *Workers before and after Lenin*, (New York, 1941); R. Conquest, *Industrial Workers in the USSR* (New York, 1967); S. O. Zagorsky, *State Control of Industry in Russia during the War* (New Haven, 1928) 등의 연구는 신생정부의 노동정책의 발달과정을 다루었다. 또한 E. H. Carr, *The Bolshevik Revolution*, ; C. Bettelheim, *Class Struggle in the USSR*, 2 vols. (New York, 1976-8)의 연구 역시 노동자들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과 제도상의 발달을 주로 다루고 있다. J. Sorenson, *The Life and Death of Soviet Trade Union* (New York, 1969); I. Deutscher, *Soviet Trade Unions*의 연구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제도적 발달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일상 생활 속에서 노동자들의 내면적 갈등이나 그들의 심적인 상태, 가치관 또는 욕구를 제대로 분석해 내지는 못하였다. 한편 기술발달의 측면에서 노동자와 경영인들 사이의 갈등을 분석한 탁월한

러므로 필자는 다만 1918년 1월~6월 사이에 '노동자 관리'의 원칙을 둘러싸고 볼셰비키와 노동조합, 공장위원회 및 여러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어떠한 노선을 내세우면서 대립하였던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필 수 밖에 없다.

봄기 다음 날부터 레닌은 국가경제를 총괄하는 민중적인 기구로서 <최고국민경제회의>(Высший совет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이하 ВСНХ로 약함)를 창설하여, 전러인민위원회(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이하 СОВНАРКОМ으로 약함)의 직속 기구로 만들고, <최고국민경제회의>는 전러인민위원회 내의 모든 인민위원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또 <최고국민경제회의>는 전적으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고 경제에 관한 직접적 결정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정하였다.<sup>72)</sup> 그러나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드는 일은 볼셰비키 당과 소비에트, 공장위원회, 군사혁명위원회, 민병대 및 기타 노동기구 사이의 끊임없는 대립과 시행착오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관리'의 시행이나 원칙의 문제는 불안정하거나 유동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sup>73)</sup> '노동자 관리'의 초안이 완전히 법률로 확정되기 이전에 벌써 '노동자 관리'의 궁극적 목표나 시행 방법에 관해 볼셰비키와 노동자들이 서로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되리라는 조짐이 나타났다.<sup>74)</sup> 왜냐하면 10월 봄기 직후 공장위원회와 레닌은 실제로 '노동자 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각기 별도로 준비하고 있었고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별개 조직을 만들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

연구서로서는 K. Bailes, *Technology and Society under Lenin and Stalin: The Origins of the Soviet Technical Intelligentsia, 1917-41* (Princeton, 1978)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18년과 내전시기의 노동자들과 경영인 사이의 갈등에 관한 논의는 매우 적다. 특히 혁명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식과 기대 그리고 좌절을 논한 연구로는 W. J. Chase, *Workers, Society and the Soviet State: Labor and Life in Moscow, 1918-29* (Urbana and Chicago, 1987) 이하 *Labor in Moscow*로 약함. ; S. Fitzpatrick, ed., *Cultural Revolution in Russia, 1928-31* (Bloomington, 1978)의 연구가 가장 탁월하지만 이 책에서도 혁명 직후나 내전 시기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72) V. I. Lenin, *CW* 35: 30; G. L. Shkliarevsky, *Organized Labor*, p. 377.

73) M. Dewar, *Labor Policy in the USSR*, p. 17; V. I. Lenin, *CW* 23: 121.

74) F. I. Kaplan, *Bolshevik Ideology*, pp. 142-158. 레닌은 노동자들이 종종 '노동자 관리' 운동 속에서 강제적 공장물수와 검병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노동자들이 공장의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11월 초에 페뜨로그라드市 공장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노동자 관리'의 지침에 관한 결의문을 작성하고 이것을 각 개별공장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볼셰비키의 공식적 선언문과 공장위원회의 결의문 두가지가 도시에 나돌게 되었다.<sup>75)</sup> 공장위원회가 작성한 문서는 공장위원회의 위력을 상징하고 이것의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sup>76)</sup> 공장위원회는 이 문서 속에서 '노동자 관리'의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노동자 관리'는 생산과정 자체에 대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특정 산업부문의 노동자를 전 국민적인 산업 생산과정에 일치시키면서 노동자를 자주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획기적인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sup>77)</sup>

한편, 11월 14일에 선포된 <'노동자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레닌은 베센하를 만들고, 공장위원회와 노조를 통합하며 경영은 중앙의 경제기구에 일임한

75) 10월 봉기 직후에 공장위원회는 '노동자 관리'에 관한 지침서인 『노동자 산업관리 시행에 관한 실천적 안내문』(Prakticheskoe rukovodstvo po provedeniiu rabochego kontroliia nad promyshlennostiu)를 결의하여 배포하였으며, 각 공장위원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준비하기 위하여 전러공장위원회 대표회의를 소집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볼셰비키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경악하였다. 레닌은 당황하여 서둘러서 초안을 다시 개정, 보완한 법령을 작성하도록 밀류틴과 라린에게 임무를 위임하였다. 볼셰비키는 드디어 『노동자 관리에 관한 지침 계획서』(Proekt instruktсии po rabochemu kontroliu)를 작성하여 11월 14일에 법령으로 발표한 후 전러공장위원회 소집을 사전에 막아 버렸다. I. Deutscher, *Soviet Trade Union*, p. 17; M. Brinton, *Workers' Control*, p. 18; D. L. Limon, "Lenine et le Contrôle Ouvrier," *Autogestion* 4 (1967), pp. 85-95.

76) B. M. Freidlin, "Dekret o rabochem kontrole," *Istoriik-markist* 5 (1933), ss. 2-3. 프레이들린은 소련사가들의 연구 가운데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의 논문 속에서 1917년 11월 14일 법령이 선포되기 직전에 공장위원회의 제안과 밀류틴의 제안 및 레닌의 제안 3가지가 서로 경쟁적으로 채택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고 밝혀주고 있다. 『노바야 지즌』(Novaia zhizn')誌에 의하면 레닌의 법령은 근본적으로 공장위원회의 제안에 기초를 둔 것이었으나 프레이들린은 이 문제는 곧 혼선에 빠졌다고 기술하였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측이 공장위원회의 제안은 산업관리면에서는 계급 투쟁적이지만 사회주의 경제수립이라는 정치적인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77) *Izvestiia*, 1917. 12. 13; M. Dewar, *Labour Policy in the USSR*, p. 21.

다고 선포하였다.<sup>78)</sup> 11월 14일 법령에 대해서 많은 공장위원회들은 크게 반발하여 타지역과 연합하여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니 이때 일부 노동조합 측은 제 3의 태도를 취하였다.<sup>79)</sup> 노동조합은 신생 혁명정부의 인민노동위원부가 노동조합의 영향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전국적 수준의 공장위원회와 소비에트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로 구성되는 <전러노동자관리회의>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Рабочего Контроля, ВСРК)가 창설되어, 이 기구가 개별 공장위원회 대신에 생산을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80)</sup> 이것이 바로 노동자 조직들이 서로 주도권을 다투게 만든 제안이었다.

1월이 경과하는 동안 공장위원회가 ‘노동자 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업을 몰수하고 분권적 성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볼셰비키는 이 상황을 매우 두려워 하였다.<sup>81)</sup> 이에 볼셰비키는 차라리 덜 급진적인 노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노동조합은 산업별로 중앙집권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어서 분권적인 공장위원회에 비해 노동 통제 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보였다. 볼셰비키는 지금까지 노동조합 조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입장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1918년 1월 7~14일간의 제1차 전러노조대회는 볼셰비키에게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제1차 전러노조대회는 소련 역사에서 공장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기로 결정한 대회였다.<sup>82)</sup> 이 결의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장위원회가 노동조합의 하위기구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볼셰비키는 지지를 표하였다. 당시 노조 지도자 출신이면서도 ‘노동자 관리’를 옹호하여 10월 혁명 이

78) B. M. Freidlin, "Dekret o rabochem kontrole," *Istoriik-markist* 5 (1933), ss. 80-95.

79) G. L. Shkliarevsky, *Organized Labour*, pp. 379-80.

80) 노조측이 제안하는 전러노동자관리회의는 노동자 대표와 전문가 대표, 소비에트 대표, 농민대표 및 공장위원회 대표를 포함하여 총 40명이 되는데 그중 공장위원회의 대표는 5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공장위원회는 노조측의 제안은 공장위원회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 그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이라고 비난하였다.

81) M. I. Mitel'man i drugie red., *Rabochii kontrol'*, nos. 204, 209, 215, 265, 268. 이 당시의 문서들은 경영인들에게 국가의 지시보다도 각 개별 공장위원회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전투적인 글로 가득차 있었다.

82) *Pervyi vserossiiskii s'ezd professional'nykh soiuзов*, 7-14, *ianvaria*, 1918g. (Moskva, 1918), ss. 134-5. 이하 *Pervyi*로 약함.



후 한때 공장위원회 측과 볼셰비끼로부터 높은 신임을 받아 왔던 로조프스키는 노동자들의 자율권의 침해에 관해서 노동자들이 심하게 반발하리라고 경고하였다.

전러노조대회 결의문 중의 '노동자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애매모호하며, 공장위원회가 마치 공장소유권을 원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sup>83)</sup>

로조프스키는 노동조합과 국가가 협동할 수 있으나 노조와 국가기구의 합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sup>84)</sup> 그는 합병을 시도할 경우 일반 노동자들이 무정부주의자나 생디칼리스트와 연합하여 반대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다. 이때 레닌은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토론을 중재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sup>85)</sup> 로조프스키는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노동자 관리'는 공장에서의 공화주의로 비유할 수 있다. 분명 '노동자 관리'는 처음에는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점은 노동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관리'가 마치 전국적인 관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조심하라. 그 오해의 원인은 개별 관리기구에게 경영인이 지닌 것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전국적인 관리는 개별공장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한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중앙집중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조직할 것인가?.... 이것은 오직 생산자 노동조

83) M. Dewar, *Labour Policy in the USSR*, p. 32. 4월의 3차 소비에트 대회에서도 대표자들은 공장위원회의 '노동자 관리'에 대해서 전면적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노동자 관리'의 범위를 크게 제한한 후에 이를 규정에 삽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벌써 10월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조직 내에서도 레닌과 지노비예프를 위시한 볼셰비끼내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84) M. Dewar, *Labour Policy in the USSR*, p. 34; *Pervyi*, ss. 96-8.

85) 레닌은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는 생산력의 향상이라는 과제와 대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노동조합이 만일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노동자 국가가 과연 사회주의 국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였다. 당시에 레닌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론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이거나 감상적인 어조를 띠었기 때문에 논쟁의 참석자들이 숙연해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I. Deutscher, *Labour Policy in the USSR*, pp. 18-21.

합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sup>86)</sup>

로조프스끼의 ‘노동자 관리’ 방식은 사전 경영과 사후 감독권의 중간 정도를 취하는 타협적인 방식으로서 중앙과 지방기구의 공동 참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우파에 속하는 사회혁명당이나 멘셰비끼는 로조프스끼의 이같은 온건한 주장에 대해서조차 동의하지 않았다.<sup>87)</sup> 멘셰비끼 이론가였던 마이스끼는 그를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은 현 단계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성공할 수 없는 정당과 밀착되는 것은 위험하며 자력으로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자노프나 로조프스끼도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은 유럽에서 혁명이 도래한 후에야 완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때까지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서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sup>88)</sup>

그러나 ‘노동자 관리’에 관해 멘셰비끼와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회혁명당 좌파로서 레닌의 중앙집권적 산업관리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한 자레트니이(Zaretnyi)의 주장을 들어보자.

‘노동자 관리’는 혁명을 달성시킨 초석이 되었으나 혁명 이후 2개월 동안 아직도 사회주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레닌식의 계급협조나 중앙정부에 타협적인 ‘노동자 관리’는 오히려 해로운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고도 총체적인 직접 관리를 원한다.<sup>89)</sup>

86) A. Lozovsky, *Rabochii kontrol'*, ss. 4-5.

87) T. Ignatenko, *Sovetskaia istoriografiia* s. 58. 이 속에서 로조프스끼는 노동자계급이 범주에 따라 태도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자들과 사무직 노동자들은 모든 종류의 ‘노동자 관리’에 반대하였고, 또 중간 기술자 수준의 노동자들은 경영인의 권한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 관리’를 통한 감시, 감독을 인정하였다. 그는 이외에도 당시 러시아 노동자들을 7개의 범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로조프스끼의 이 분석은 원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88) I. Deutscher, *Soviet Trade Union*, p. 22; *Pervyi*. 11. 29, 75, 128, 197.

89) S-R Maximilists, *O rabochem kontrole*, Zaretnyi (Moskva, 1918), s. 4.

여기서 보듯이 자레프니이는 무엇 보다도 '노동자 관리'가 중앙집중적인가 아니면 지방분권적인가라는 문제는 제쳐두고, 계급타협적인가 아니면 계급비타협적인가 하는 문제를 더 중시하고 있다. 즉 그는 계급타협적인 '노동자 관리'는 이기적이며 경제복구의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스트로예프는 반드시 사회주의적인 階級意識을 갖춘 노동자만이 '노동자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레닌의 중앙집권적인 관리 방식은 진정한 '노동자 관리'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였다.<sup>90)</sup>

1월 이후 레닌은 소비에트의 도움을 받아 은행과 대규모 국영기업 부문을 서둘러 國有化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관리권을 행사하는 공장위원회를 실제적으로 노동조합의 휘하에 두어 통제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였다.<sup>91)</sup> 이에 대해서 돈바스주의 무정부주의자들과 모스크바의 철도노동자, 예카테리노다르의 항구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관리권을 이양하기를 거부하면서 격렬히 시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sup>92)</sup> 페나모(Pinamo) 공장을 위시하여 페뜨로그라드의 많은 대기업 노동자들은 기업인들의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기업을 몰수하거나 강제 점거하고 원료와 연료구입을 위해 대표를 생산지로 보내거나 회계장부와 창고를 검사하면서 경영인의 재산도피를 고발하는 등 직접경영을 지속하였다.<sup>93)</sup> 페뜨로그라드의 해군부 산하의 무선 전기공장, 무기공장 그리고 뿌질로프 공장에서는 공장위원회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동규율을 강화하는 엄격한 훈련을 스스로 실시하기도 하였다.<sup>94)</sup>

1918년 봄 아래로부터 행해지는 '노동자 관리'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자 초조해진 레닌은 새로운 방안으로 1918년 봄에 '국가 자본주의'의 방식을 제안하였다.<sup>95)</sup> 레닌의 '국가 자본주의'는 國有化 계획을 늦추고, 과거 부르주아 출

90) *O rabochem kontrole*, Nestroev, ss. 10-11.

91) M. Brinton, *Workers' Control*, p. 32; I. Deutscher, *Soviet Trade Union*, p. 25.

92) G. P. Maximoff, *Syndicalists in the Russian Revolution* (New York, 1978), pp. 12-13. 이하 *Syndicalists*라 약함.

93) W. J. Chase, *Labor in Moscow*, p. 37; N. M. Aleshchenko, *Moskovskii sovet v 1917-51gg.* (1976), ss. 41-43; M. Dewar, *Labor Policy in the USSR*, pp. 22-23. 에 의하면 1918년 1월에는 수도내 공장들 중에서 50%가, 3월에는 75%가 전면적 '노동자 관리'를 시행하였다.

94) M. I. Mitel'man i drugie red., *Rabochii kontrol' dok.* nos. 374, 414, 417.

95) 그에 의하면 '국가 자본주의'란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의 전문 경영인에게 기업의 경영을 맡기는 일인관리제(Единоначалие, One-Man Management)를 도입한 후, 국가 행정기구가 이들을 감독하는 체제를 의미하였다.<sup>96)</sup> 다만 레닌은 노동자의 반발을 감안하여 ‘노동자 관리’는 간접적 감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다시 말해 레닌에게서 ‘노동자 관리’는 국가로부터 임명된 노동자 대표가 자본가나 전문 경영인에 대해서 감독권을 갖는 것이지, 결코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sup>97)</sup> 그러나 오신스끼는 레닌의 집단관리 방식을 비판하고 의장직을 사임하였다. 이때 오신스끼의 반박은 후일 ‘노동자 민주파’의 사상적인 근거가 되었다.

레닌 동지가 말하는 ‘국가 자본주의하의 집단 관리’라는 것은 엄밀히 보아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가 회계와 감독 그리고 규율을 책임지고 부르주아적 경영인이 의사결정과 재산권을 책임진다면 실질적인 기능은 부르주아에게 돌아갈 것이다. 차라리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 국가사회주의가 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즉 직접 생산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의사결정권이 있음을 의

---

국가가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비호와 감독 하에 사기업의 몰수를 유보하고, 자본가와 기술자를 고용하며, 차등임금제와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이윤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각종 자본주의적 투자와 경영방식을 허용하는 과도기적 노선을 의미하였다. S. L. Mekhanik, “Ob ispol’zovanii gosudarstvennogo kapitalizma v podgotovke sotsialisticheskogo obobshchestvleniia sredstva proizvodstva,” *Istoriia SSSR* 5 (1961), ss. 21-39.

96) S. Malle, *War Communism*, p. 56. 1918년 1월 볼셰비키의 계획은 대기업 중에서 특별히 노동자-경영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기업만을 국유화하고 그외 대부분은 국유화를 중지하고 생산과정에 대한 행정적 감시만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1917년 10월에서 1918년 6월까지 81개의 기업이 인민위원회 (ЧК)에 의해 몰수되었다. 레닌은 노동자들에 의한 직접 경영을 탐탐치 않게 여겼다. 볼셰비키는 그 중 30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인에게 기업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25개에 대해서는 소유권만 몰수하고 기업인의 경영 권한은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3개에 대해서는 국가소유로 바꾼 후 경영인과 노동자들의 집단관리의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2개 기업만 완전히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 즉 국영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영화의 방식에 대해서 볼셰비키 사이에서는 당시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었다.

97) S. Malle, *War Communism*, p. 36; V. I. Lenin, *CW* 26: 104-11, “Can the Bolsheviks Retain State Power?”

미하기 때문이다.<sup>98)</sup>

당시 '노동자 관리'에 관해 레닌을 능가할 정도의 이론가가 없었다. 그 외에 '노동자 관리'에 관해 이론적 제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은 로조프스끼와 라린(Larin), 스크보르조프-스제빠노프(Skvortsov-Stepanov), 밀류틴(Miliutin), 아르스끄(Arsk), 쵸페로비치(Tsperovich) 그리고 오신스끼 정도였다.<sup>99)</sup> 이때 '노동자 관리'의 이론적 작업에서 중요한 글이 나타났다. 그것은 스크보르조프-스제빠노프의 『'노동자 관리'에서 '노동자 행정'으로』라는 논문였다.<sup>100)</sup> 스크보르조프는 10월 혁명 이전의 '노동자 관리'의 주된 기능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인의 수탈에 저항하는 것이었으나, 10월 이후에는 주된 기능이 기업인의 생산 사보타지를 감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강제적 기업몰수 이후부터는 '노동자 관리' 운동이 종종 소 인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01)</sup>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관리'가 노동자들의 사회주의적意識의 성숙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노동자 관리'가 시대적 소임을 다했으며 이것이 중앙기구에 통합되는 '노동자 행

98) N. Osinski, *Stroitel'stvo sotsializma* (Moskva, 1918), ss. 34-6, 75. 오신스끼는 볼셰비키의 국가관리와 국유화 그리고 국가자본주의를 합친 노선은 혁명적이지도 않고, 또 구체제의 대안도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볼셰비키는 '노동자 관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10월 이전의 '노동자 관리'는 사실은 형식상의 관리였으며 실제 내용면에서는 관리가 아니라 비호, 경계, 감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99) 내전과 신생 소비에트 국가수립 기간에 신생 정부는 혁명기록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서와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혁명의 합목적성을 밀반침하기 위한 이론을 세우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1918-23년 사이의 연구는 당연히 승전의 환희에 젖어 기술된 것이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객관성이 크게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0) T. Ignatenko, *Sovetskaia istoriografiia*, s. 4; "Pis'mo I. I. Skvortsov-Stepanova V. D. Bonch-Bruievichu," *Proletarskaia revoliutsiia* 12 (1928), s. 293. 스크보르조프-스제빠노프는 <사회민주당>誌의 편집장으로서 1917년 2월 이래 1918년 4월까지 '노동자 관리'에 관한 글을 많이 실었는데 볼셰비키 지도부는 이것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적 전환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기초로 사용하였다.

101) I. Skvortsov-Stepanov, *Ot rabochego kontroliia k rabochemu upravleniiu v promyshlennosti i zemledelii* (Moskva, 1918), ss. 3, 5-6, 9. 24. 모스크바시의 경제복구를 위한 노동자들의 활동과 성공에 관해서는 T. V. Kuznetsovoi, *Sozdanie sovetskogo apparata upravleniia gorodskim khoziaistvom Moskvy, 1917-25gg.* (Moskva, 1965)를 참조할 것.

정'(rabochee upravlenie)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닌이나 부하린은 스끄보르쑈프-스체빠노프의 '노동자 행정'의 착상을 매우 격찬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불세비끼에 의해 창설된 <최고국민경제회의> 기구가 관료적으로 변하지 않고 민중적인 기능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었다. 이에 당내 좌파인 오신스키는 '노동자 행정' 속에서 官僚主義的인 속성과 비민주적 폐단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sup>102)</sup>

지금의 '노동자 관리'는 <'노동자 관리'에서 '노동자 행정'으로>라는 도식 속에서 신생 사회주의 정부를 외면하고 국가자본주의라는 이중적인 階級協助 체제로 전락하고 있다. 엄밀히 보아 '노동자 행정'은 <최고국민경제회의>와 같은 민중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sup>103)</sup>

1918년 봄 동안 아래서부터 노동자들이 강제적으로 공장을 점거한 후 불세비끼가 '노동자 관리'를 금지하면 생산과 유통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곤 했다. 이 상황에서 레닌은 '노동자 관리'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sup>104)</sup> 따라서 그는 공장위원회와 '노동자 관리'를 뺄 때 부르주아적이며, 무정부주의적이고도 反革命的인 생디칼리즘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sup>105)</sup>

1918년 봄과 6월 사이에 노동자들에 의한 대규모 사기업 몰수와 자주적 '노동자 관리' 운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노동자 관리'는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 뿐만 아니라 이바노보-보즈네센스끄, 돈 바쓰, 우랄지역의 금속과 제철, 탄광지대 그리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시빌이나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지역의 공장에서도 시행되었다.<sup>106)</sup> 특히 1918년 초에 모스크바의 공장의 88%가 공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18년 3월에는 모스크바의 경우만 예를 들면 총 288개의 공장 중에서 222개의 공장이 노동자 관리 위원회의

102) N. Osinski, *Stroitel'stvo sotsializma* (Moskva, 1918), ss. 35, 52-55.

103) N. Osinski, *Stroitel'stvo sotsializma*, s. 21.

104) S. Malle, *War Communism*, pp. 96-7; Z. Stepanov, *Rabochie Petrograda* (Moskva, 1965), ss. 239-40; C. Bettelheim, *Workers' Control*, pp. 125-130.

105) V. I. Lenin, *CW* 36: 128.

106) M. I. Itkin, "Nekotorye funktsy rabocheho kontoliia v period podgotovki vooruzhennogo vosstaniia, iul'-oktiabr' 1917 g.," *Rabochii klass i rabochee dvizhenie v 1917 g.* (Moskva, 1964), ss.306-8.

감독 아래 자주관리가 시행되었다.<sup>107)</sup> 1917년 11월에서 1918년 3월 사이 800여개의 기업이 국유화되었다. 이 중에서 5%만이 <최고국민경제회의>의 업적이며, 17%는 공장위원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1918년 중반까지 공장위원회가 공장 경영진의 거의 5분의 3이상에 참여하고 있었다.<sup>108)</sup> 그러나 자주적 '노동자 관리' 운동은 원료와 연료의 수송이 마비되고 전국적인 생산 조직망이 파괴되거나 숙련공이 감소되는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생산성의 측면에서 '노동자 관리'는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 최초의 장애는 경영인들의 저항과 경영포기, 그리고 냉담한 태도에서 야기되었다.<sup>109)</sup> 그러나 카플란이 주장한대로 '노동자 관리' 운동의 좌절의 가장 큰 원인은 공장위원회 내부 구성상의 변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숙련공들 다수가 공장위원회의 지도부에서 빠져나가 국가기구나 노조기구 혹은 赤衛隊로 선발됨으로 말미암아 남아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효율적인 자주관리가 점차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생산의 실패는 '노동자 관리' 그 자체에 있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위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점증하는 식량난과 볼셰비끼의 탄압 탓으로 5~6월에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멘셰비끼와 사회혁명당의 인기가 오르면서 '볼셰비끼 타도'의 슬로건이 나돌기 시작하였다.<sup>110)</sup> 1918년 6월 무렵 볼셰비끼는 1917년보다 기반이 더욱 약해진 상

107) N. Silant'iev, *Rabochii kontrol' i sovarkhozy: Moskovskii rabochii* (1957), ss. 77, 88.

108) V. Z. Drobizhev, "Sotsialisticheskoe Obobshchestvlenie promyshlennosti v SSSR," *Voprosy istorii* 6 (1964), ss. 56, 63; T. F. Remington, *Building Socialism*, p. 59.

109) J. Chauvier, "Contrôle Ouvrier en Autogestion Sauvage en Russie 1917-21," *Revue des Pays de L'Est* 4: 1 (1973), pp. 71-5.

110) 그 단적인 증거로서 1918년 3월 이래로 볼셰비끼 당원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볼셰비끼의 승리에 대해 기대감에 차서 당원의 수는 증가하여 39만명으로 늘어났으나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세하자 별 보상없이 당원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그다지 매력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R. Service, *The Bolshevik Party*, p. 67; T. H. Rigby, *Communist Party Membership*, pp. 63-9; S. G. Strumilin, *Vserossiskaia perepis' chlenov RKP* (b) 참조.

황이었다. 볼셰비키는 그야말로 몇몇 도시에서만 근거를 갖는 취약한 당이 되어 있었다. 가장 큰 저항은 철도노동자들로부터 나왔다. 철도노동자들은 '노동자 관리'의 구호를 내걸고 상부지시에 복종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였다. 이에 놀란 볼셰비키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경질시켰으나 철도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복속시키지는 못하였다.<sup>111)</sup> 그 외에도 뿌젤로프 공장과 오부꼬프 공장에서도 '노동자 관리'를 위하여 정부에 저항하는 파업을 시도하였다.<sup>112)</sup>

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볼셰비키의 정책에 저항하였다면 다시 온건 사회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된 정부가 되돌아 올 것을 바랐을까? 이들이 멘셰비키나 사회혁명당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였다. 공장위원회의 '노동자 관리' 운동은 볼셰비키와의 동맹에 기초를 두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멘셰비키가 '소비에트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1917년과 마찬가지로 볼셰비키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노동자들에게 '소비에트 권력'의 구호는 여전히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 反革命의 위협이 항존하고 있었으므로 노동자들은 볼셰비키를 전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다.<sup>113)</sup> 그러므로 1918년 봄 동안 생산과정에서 분규나 파업이라는 저항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 공장위원회의 딜레마였다.<sup>114)</sup>

그러나 이런 조건들 이외에 노동자들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은 바로 內戰의 개시라는 사건이었다. 6월에 백군이 군사적 반격을 개시함으로써 노동조합이나 공장위원회의 '노동자 관리'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111) T. Remington, *Building Socialism*, p. 103; M. P. Price, *My Reminiscence of the Russian Revolution* (London, 1921), p. 280.

112) R. R. Abramovich, *Soviet Revolution, 1917-39* (New York, 1962), pp. 153-4. 이 사건으로 당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이바노보-보즈네센스크, 그론슈타트市 소비에트에서는 당원이 7200명에서 700명으로 줄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T. F. Remington, *Building Socialism*, p. 104.

113) T. Remington, *Building Socialism*, pp. 98-102; W. Chase, "Revolutionary Enthusiasm and the Disintegration of Moscow, 1918-21," paper presented AAASS (1981), pp. 36-7. 제헌의회의 해산에 항의하는 분위기가 1918년 3월 초에 다시 강하게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표현을 분석하면 혁명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나 1921년에 가까이 이를수록 혁명의 결과에 대해 실망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114) A. Pankratova, *Fabzavkomy*, s. 285.



내전으로 볼셰비끼 내 좌파조차 反혁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비판적인 태도를 중지하였고 노동자들의 反볼셰비끼적인 분위기는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났다.<sup>115)</sup> 내전에 대비하여 볼셰비끼 정부는 온건한 국유화 노선을 중단하고 1918년 6월의 <국유화 령>을 선포하여 급속도의 국유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수많은 숙련공이나 유능한 행동대원 노동자들이 적군에 동원되었다.<sup>116)</sup>

내전의 개시 이후 레닌은 자주적 '노동자 관리'를 옹호하던 무정부주의자들과 사회혁명당 좌파를 조직적으로 탄압하였다.<sup>117)</sup> 드디어 6월 28일 국유화령이 선언된 후 중앙 정부는 개별 공장의 자주적 '노동자 관리'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하였다.<sup>118)</sup> 정부는 '노동자 관리'에서 사전 경영과 사후 감독을 완전히 구별짓고, 경영은 <최고국민경제회의, 베센하>에 맡기고, 사후 감독은 중앙의 인민위원회 산하에 새로 창설된 <국가관리인민위원회> (Народная Комисс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이하 НКГК로 약함)<sup>119)</sup>의 권한 하에 통합시키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볼셰비끼는 '노동자 관리'를 '노동자 행정'이라는 말로 바꾸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행정 기구에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기존의 개별 공장 내의 모든 자주적 관리기구를 중앙의 <국가관리인민위원회>의 아래에 배속시켰다. 마침내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

115) *Proletarii* 51 (1919. 2. 21), 73. (1919. 2. 28). 74. (1919. 3. 1); R. Service, *Bolshevik Party*, p. 83.

116) 볼차프부대가 중부 산업지대를 점령하게 되면 이것은 혁명의 끝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이에 놀란 도시 노동자계급이 다시 적군에 자원하는 수가 늘어났다. R. Service, *Bolshevik Party*, p. 88; E. V. Gimpel'son, *Sovetskii rabochii klass*, 참조.

117) E. H. Carr, *Bolshevik Revolution*, 2: 100; V. I. Lenin, *CW* 22: 516-17.

118) J. Buynan, *Forced Labor*, p. 27.

119) 10월 혁명 이후 레닌은 공장위원회와 중앙관리위원회의 경쟁 상태를 매우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사후감독 면에서 중앙의 관리 하에 전쟁위원부, 식량위원부, 내무위원부, 최고국민경제회의, 산업관리기구 및 노조 내의 감시,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국가관리위원회> 하에 두려고 시도하였으나 1918년 6월까지 법률상 선언 이외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18년 5월까지 당시 <국가관리위원회> 내에 참여한 관리자들은 전국적으로 총 937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볼셰비끼는 12명 뿐이었다. 다른 행정기구에서는 볼셰비끼 지지자들이 평균적으로 13.3%에 이른데 비하여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2.3%에 지나지 않았다. T. F. Remington, "The Rationalization of State Kontrol", W. G. Rosenberg et al., eds., *Russian Civil War*, pp. 216-17; N. Voskresenskaia, *V. I. Lenin*, ss. 96-7.

이 가장 심하였던 철도와 석탄 및 다른 기간산업 부문에서 자주적 관리위원회를 강제적으로 폐쇄하였다.<sup>120)</sup> ‘노동자 관리’의 면에서 노동조합의 발언권은 오직 생산력 증대의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에만 허용되었다.<sup>121)</sup> 이리하여 내전의 명분 하에서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생산 관리권을 행사하기에 극도로 불리한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 V. 맺음말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필자는 소련 사가들의 공식적인 서술이나 反볼셰비키 입장을 취하는 자유주의 계열의 서방 사가들의 논의에서 많은 공백과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자유주의 계열의 서방 사가들의 주장 중에서 자주적 ‘노동자 관리’ 운동이 러시아 농민의 반란의 전통에서 비롯된 자연발생적 인민주의 운동이라거나 혹은 무정부주의 운동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는 사건의 특정한 면만을 강조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1917년 혁명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反혁명에 대한 의심과 부르주아계급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때마다 즉흥적으로 강제적 물수행위와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노동자계급이 혁명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계급 갈등과 권력 문제에 관한 인식이 점차 성장해 가고 있었던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또한 1917년 당시 노동자들이 불

120) T. F. Remington, *Building Socialism*, p. 46; *Novyi put'* 3 (1918. 1); A. Pankratova, *Favzavkomy*, ss. 295-6; J. Buynan and H. H. Fisher, *The Bolshevik Revolution, 1917-8; Documents and Materials* (Stanford, 1934), pp. 619-20. 1918년 3월에 <국가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레닌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국가관리위원회>는 노동자들이 경영이나 관리를 배우는 학교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당시에 경영의 경험이 전혀 없던 볼셰비키당의 고위 간부인 몰로토프가 본 위원회의 의장직에 지명되었고 기관지인 『노브이 뿌찌』(*Novyi put'*)를 인수하였는데 이들은 ‘노동자 관리’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다.

121) T. Ignatenko, *Sovetskaia istoriografiia*, s. 111; V. P. Miliutin, *Novyi period mirovoi ekonomiki: Kurs lektsii po ekonomike perexodnogo perioda* (Moskva, Leningrad, 1923) 참조.

세비끼의 선동과 책략에 따라 행동했다고 보는 反볼셰비끼적인 서방 보수 사가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사료에서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2월 혁명 이후 공장위원회를 위시한 각종 노동자 조직에서의 무수한 직접적인 투표 참여와 회의, 토론 및 계몽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계급적 주체 의식을 키워갔으며 혁명 이후 질서에 대한 구상이나 혁명의 목표에 대하여 볼셰비끼와 자주 충돌하였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 노선을 조정하고 선택해 갔다.

둘째, 1917년 2월 이후 자주적 '노동자 관리'에 관해 멘셰비끼를 위시한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공장위원회 조직 내의 노동자들이 우익에게 등을 돌리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후 '노동자 관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숙련공과 미숙련공은 서로 합류하였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소비에트 권력'의 구호로 쏠리게 되었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소비에트 권력'의 구호를 내세우는 볼셰비끼와 동맹을 맺을 것을 선택하였으며 바로 이점이 우익과 임시정부를 전복시키게 된 10월 봉기의 기초가 되었다.

셋째, 노동자들은 자주적 '노동자 관리' 운동 속에서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처음에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 관리'는 공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내부의 치안과 규율을 통해 기업인을 감시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후 경제가 파탄상태에 빠지고 계급갈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생산을 중지시키려는 부르주아계급의 反혁명 음모로부터 혁명을 보호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수단이라는 급진적 의미를 덧붙이게 되었다. 또 1917년 10월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도 노동자들에게 자주적 '노동자 관리'는 오직 이윤과 계급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르주아계급의 경영과는 달리 공동체와 민중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실시되는 도덕적 관리와 감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같은 해석은 레닌이 정의를 내린 마르크스주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것이 사회주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1917년 혁명에서 공장위원회는 많은 정당들 중에서 볼셰비끼를 동맹자로 선택하였고, 그것은 볼셰비끼가 '노동자 관리'의 실현을 가장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넷째, 소련 사가들의 서술과는 달리 자주적 '노동자 관리'에 관해서 처음부터 노동자계급과 볼셰비끼는 매우 다른 입장을 지녔으며 오히려 볼셰비끼측이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차이 때문에 자주적 ‘노동자 관리’를 둘러싸고 노동자계급과 볼셰비키는 동맹과 경쟁 그리고 갈등의 관계를 반복하였다. 1917년 2월 혁명의 초기에는 이 차이가 별로 감지되지 못하였다. 레닌은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는 이 운동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 이를 적극 인정하여 혁명의 목표 속에 수용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노동자 관리’를 ‘노동자 국가의 관리’ 즉, 노동자 국가 하에서의 노동자들의 감시, 감독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 그것이 노동자들의 직접경영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10월 혁명 이후부터 자주적 ‘노동자 관리’는 볼셰비키의 권력장악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하였고, 레닌은 1918년 이후 자주적 ‘노동자 관리’ 운동을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이같은 입장의 차이는 혁명 직후 당내 이념 분열과 당과 노동자계급의 심각한 저항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볼셰비키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자 관리’라는 말을 ‘노동자 국가에서의 관리’, 또는 ‘노동자 행정’이라는 말로 바꾸면서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주체적 組織을 파괴하였다.

끝으로, 러시아 혁명에서 자주적 ‘노동자 관리’가 쇠퇴하게 된 것은 러시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본래 취약했다거나 목적의식이 결여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의 組織力이 약화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혁명 이후 러시아 노동자들은 자주적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너무도 짧았다. 그런 가운데 볼셰비키의 내전 승리와 생산력 향상이라는 명분에 저항할 수 없었고 볼셰비키의 노동정책은 권력 통합의 목적 아래 노동자계급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혁명에 열성적이었던 노동자들 중 일부가 중앙행정직이나 당 간부직에 선발되어 간 것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組織力을 약화시키고 주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불운한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노동자 출신의 당원이나 조직가들은 자주적 ‘노동자 관리’를 폐지하고 산업 생산의 관리와 감독을 중앙집권적인 산업 생산기구로 이양시키는 데에 몰두하였고, 또한 이들은 노동자계급을 대표하기보다는 노동자계급을 감시, 감독하거나 그들의 집단적 연대의식을 해체시키는 데에 봉사하도록 만 들어졌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Freidlin, B. M., *Ocherki istorii rabocheho dvizhenie v Rossii v 1917 g.*, Moskva, 1967.
- Ignatenko, T. A., *Sovetskaia istoriografiia rabocheho kontroliia i natsionalizatsii promyshlennosti v SSSR 1917-19gg.*, Moskva, 1971.
- Kollontai, A. M., *Rabochaia oppositsiia*, Moskva, 1921.
- Lozovskii, S. A., *Rabochii kontrol'*, Petrograd, 1918.
- Mitel'man I. I. i drugie red., *Rabochii kontrol' v promyshlennykh predpriatiiakh Petrograda, 1917-18 gg.* T. 1, 2., *Sbornik Dokumentov*, Leningrad, 1947.
- Osinski, N., *Stroitel'stvo sotsializma*, Moskva, 1918.
- Pankratova, A. M., *Fabzavkomy Rossii i bor'ba za sotsialisticheskuiu fabriku*, pod red. Pokrovskogo, Moskva, 1923.
- Selitskii, V. I., *Massy v borbe za rabochii kontrol', mart-iun' 1917 g.*, Moskva, 1971.
- Silant'ev, N. P., *Rabochii kontrol' i sovnarkhozy*, Moskva, 1957.
- Soiuz S. R.- Maxialistov, *O Rabochem kontrole*, Moskva, 1918.
- Stepanov, Z. V., *Rabochie Petrograda v periode podgotovki i provedeniia oktiabr'skogo vooruzhennogo vosstaniia: avgust-oktiabr' 1917g.*, pod red. Fraiman, Moskva, 1965.
- Vinogradov, V. A., *Rabochii kontrol' nad proizvodstvom: teoriia, istoria, sovremnnost'*, Moskva, 1983.
- Voskresenskaia, N. A., V. I. Lenin: *Organizator sotsialisticheskogo kontroliia*, Moskva, 1970.
- Brinton, M., *The Bolsheviks Committee and Workers' Control*, London, 1970.
- Deutscher, I. *Soviet Trade Union: Their Place in Soviet Labour Policy*, London, New York, 1950.
- Dewar, M. *Labour Policy in the USSR, 1917-28.*, London, 1956.
- Hunnius, G., ed., *Workers' Control*, New York, 1973.

- Kaplan, F. I., *Bolshevik Ideology and the Ethics of Soviet Labour, 1917-20: The Formative Years*, New York, 1968.
- Koenker, D., *Moscow Workers and the 1917 Revolution*, Princeton, 1981.
- Lenin, V. I., *On Workers' Control and the Nationalization of Industry*, Moskva, Progress Publisher, 1970.
- Mandel, D., *The Petrograd Workers and the Fall of the Old Regime: From the February to the July days, 1917*, New York, 1978.
- \_\_\_\_\_, *The Petrograd Workers and the Soviet Seizure of Power: From the July Days to July 1918*, New York, 1985.
- Maximoff, G. P., *Syndicalists in the Russian Revolution*, New York, 1978.
- Rosenberg, W. G., Suny and D. Koenker, eds., *Party, State and Society in the Russian Civil War: Explorations in Social History*,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 Service, R., *The Bolshevik Party in Revolution: A Study in Organizational Change, 1917-23*, London, 1979.
- Sirianni, C., *Workers' Control and Socialist Democracy: The Soviet Experiences*, London, 1982.
- Smith, S. A., *Red Petrograd: Revolution in the Factories, 1917-18*, Cambridge, 1983.
- Zagorsky, S. O., *State Control of Industry in Russia During the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28.
- 이인호, "러시아혁명과 역사해석의 문제", 『서양사론』 제33호 (1989, 11), 197-230.
- 이정희, "러시아 노동계급의 형성, 1870-1914: 급진주의 전통의 사회적 기원," 이만호 외 『노동계급의 형성』 (느티나무, 1991), 261-310.
- \_\_\_\_\_, "1917년 러시아혁명과 노동계급의 정치의식," 오주환 외 『혁명, 사상 그리고 사회변동』 경북대 출판부 (1991), 149-88.
- \_\_\_\_\_, "레닌의 노동정책과 노동자 관리 (Workers' Control)", 『러시아 연구』 제 5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95), 159-220.

## резюме

Настоящая диссертация анализирует спорные вопросы на роль таких факторов, как сознательность и стихийность рабочего класса и как марксистская идеология в политике Большевиков в рабочем контроле в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и в период построен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1917-18 годах.

Для решения этих вопросов, автор использует такие архивные материалы, как разговоры, протоколы, дискуссии и сообщения на различных митингах рабочего класса в 1917 году. Автор подробно расследует перемены в отношениях Большевиков и фабзавкома и основную причину нового конфликта между обоими лагерями, изучая о том, как рабочий класс относился к термину 'социализм' до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Из этого изучения,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рабочий контроль развивался только в соотношении с разрастающимся политическим сознанием рабочего класса. Так как рабочие пережили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с мелко-буржуазной 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ями в марте-октябре 1917 года, рабочие сами стали осознавать коренное различие обеих позиций, суть революционной цели, саму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волюции.

В отличие от утверждения советских историков автор отмечал, что рабочий класс и партия Большевиков имели совершенно различие взгляды на рабочий контроль даже с первых дней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1917 года. Также рабочий контроль обозначал для рабочего класса мор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омышленностью, приносящее пользу интересам народа, в отличие от буржуаз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щущего прибыль. Это никогда не было марксистским убеждением. Однако рабочие были уверены в том, что это и есть социализм. Однако В. И. Ленин сам отметил, что именно рабочий контроль и является контролем рабоч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этому после Октября рабочие и Большевики противостояли друг другу в отношении к рабочему контролю.